



고향의 '情' 안고 일상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이 고향의 정을 가득 안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애리 기자

중국 발 '폐렴' 공포 광주·전남 점차 확산

광주 두 번째 능동감시 대상자 우한시 방문...전국 확진 환자 4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두 번째 능동감시 대상자가 나타나는 등 '중국발 폐렴 공포'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전남에서도 중국에 다녀온 방문객 중 발열, 가래, 기침 등 폐렴 의심환자 신고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시·도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방역에 간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 오늘 후보신청 마감...공천 본격화

4·15 총선 ▶관련기사 3·4면

내달 10일까지 서류·면접...컷오프 명단 '촉각' 일부 예비후보들 단일화도 물밑 추진 변수될 듯
국민의당 분화 야당 '제3지대' 통합 논의 속도

설 연휴 종료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호남 텃밭 탈환을 바라는 민주당은 후보 공모를 시작으로 컷오프 명단 발표 등 경선 준비를 활발하게 준비하면서 총선 분위기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에서 분화한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제3지대 구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라공천 검토대상인 전라 지역 15곳을 뺀 238곳 지역구에 대한 후보 공모를 하고 있다.
28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면접 심사에 이어 20일경 컷오프(공천 배제) 명단을 추리고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한다.
4·15 총선을 위한 민주당 특별당규를 보면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15%)·기여도(10%)·의정활동 능력(10%)·도덕성(15%)·당선 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40%), 면접(10%)을 종합해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설 전후로 민심의 동향을 파악한 민주당 각 예비후보 캠프는 당원·여론조사 등 경선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선거구별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특정 예비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에서는 비교 열세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중앙당에서 발표하는 컷오프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컷오프는 당선 가능성, 당적 변경 이력,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자체 분석에서 후보들 간 격차가 20%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컷오프되고 경선에도 나설 수 없는 만큼 후보자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 이후 탈당했다가 다시 당으로 복귀한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당적 변경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과나 각종 구설에 오른 경력 있는 후보들의 컷오프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일부 선거구에서는 전략공천 카드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하면서 중앙당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략공천이 성사될 경우 탈락한 예비후보 측의 큰 반발이 예상되면서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무소속 현역 의원들도 지역구에 상주하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에 열세라는 결과를 받은 야당 현역 의원들은 중도 세력의 결집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의 '어게인 2016 국민당 돌풍'을 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민중당 등 진보 정당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선거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나고 민주당은 경선, 국민의당 출신 야당들은 제3지대 통합 논의 등으로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갔다"면서 "1대1 구도가 형성되면 총선 분위기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27일 기준 1천846명에 달한다. 광주는 47명, 전남은 55명이다. /임재만 기자

호남 최초 융복합 미디어 광주매일 TV

- [파워인터뷰] 김경진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 제1기 전남 동부권 최고 경영자 클럽 개강
- [파워인터뷰] 서정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속 특별위원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청문의 062)650-2024

2020 수목비엔날레 관람객 30만 목표

전남도, 신규 EI 개발 등 준비 순조

전남도가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신규 EI(Event Identity)를 개발, 관람객 유치 목표를 30만명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7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에 따르면 최근 신규 EI를 개발하고 총괄 행사 및 홍보대행사 선정을 완료하는 등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사무국은 국제행사 브랜드 가치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이포그래피(전각)를 이용한 로고와 서체에 가독성과 전통성, 세련미를 강화한 EI를 개발했다. 또한 비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의 질

적 수준을 확보하고 지역·타깃 별로 효율적 홍보 추진을 위해 총괄 행사 및 홍보대행사를 2018년 비엔날레보다 4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말 선정했다.
특히 비엔날레의 꽃인 본 전시를 위해 전시 경험이 풍부한 큐레이터 7명을 최근 선정했다. 앞으로 전시관별 주제와 콘셉트에 맞는 우수작가를 선정해 수목의 다양한 변화를 연출할 구상이다.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을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목표와 진도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5개국 160여명의 작가가 참여, 축제의 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제7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우를 모십니다!

광주·전남 각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7기 원우모집에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7기를 맞는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그동안 인문·경영·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전국적으로 명망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지역CEO와 리더들이 보다 큰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

- ◆ 창조·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
- ◆ CEO와 리더들의 특별한 만남의 장, 인적네트워크 확장
- ◆ 각 분야의 성공 인물 강사진 포진, 융·복합 마인드 함양
- ◆ 우리 발전 방향은 우리 스스로! 에듀셀빙 워크숍
- ◆ 창조기획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문가 HOT-LINE
-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힐링의 시간

모집인원 100명내외

교육기간 2020년 3월3일(화) 개강~11월24일(화) 종강 (1년 과정 연 18회)

지원자격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기관단체장, 변호·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리더가 되고 싶은 분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내 아젤리아홀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6시부터 식사 제공)

수강료 38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모집기간 2020년 2월 28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문의전화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8 / 010-3616-9903
062)650-2074 / 010-8785-8151